



여수-광양 이어준 묘도 '전성시대' 열렸다



5개 마을로 구성된 묘도의 원동마을, 돌산도와 함께 여수의 섬 가운데 '유이하게' 논농사가 가능한 묘도는 과거 다랭이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블루오션' 다도해 <19>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② 여수편 - 묘도·백야도

이순신대교·묘도대교 개통...유동인구 급증
다랭이 논·노랑해전 전적지 등 볼거리 가득
상수도·편의시설 부족...주민 감소 해결 과제



광양과 여수 사이에 자리한 묘도는 지난 2013년 이순신대교와 묘도대교가 각각 개통하면서 '전성시대'를 열었다. 이순신대교 앞에 도독마을의 진린도독 흉상과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이 보인다.

묘도는 광양과 여수를 잇는 섬이다. 2년 전인 2013년 이순신대교와 묘도대교가 각각 개통되면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평일 이순신대교 홍보관에 5000명이 넘는 외지인이 찾는 등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조700억원과 19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이 2개의 다리 덕분에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 전체가 하나로 묶였다.

특히 콘크리트 주탑 높이가 27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순신대교는 국산 자재와 국내 기술을 총동원한 9.58km의 다리다.

여수 8경인 영취산 진달래와 봉화산전망공원, 은동산성, 총무공 이순신 및 중국 명나라 진린 도독 전적지, 바다낚시터 등 나를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부한 이 섬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묘도동사무소 김동수(7급·38) 주무관은 "백반집이나 국립집도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포스코나 여수국가산업단지 직원만이 아니라 외지인도 몰려드는데 묘도만의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묘도는 사실 교양이와 관계 없이 굴의 의미인 옛이름 '괴섬'에서 비롯됐다. 괴섬을 한자로 묘도로 표기하면서 명칭이 정해진 것이다. 전남 여러 섬이 총무공과 인연이 깊지만, 묘도는 이 총무공이 1598년 9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머물며 전사한 노랑해전 전적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여수 산하 49개의 유인도 가운데 돌산도와 함께 '유이하게' 논농사를 짓는 묘도는 그 덕분에 의식주만은 걱정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었다. 늦가을이면 황금색 들녘과 은빛 바다를 앵글에 넣으려는 사진작가 50~60명이 읍동마을의 다랭이논 인근에

족 늘어서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도 장관이라고 김 주무관은 소개했다.

하지만 여객차원이 풍부하고 논밭이 기름진 이 섬 역시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8년 말 524세대 1366명이었던 주민 수는 지난해 말 571세대 1267명으로 줄었다. 여전히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도 사용할만큼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민들은 쓰레기와 도둑이 많아졌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남해안 해상 물류중심지인 여수반도와 광양항을 연계하는 거점 관광지역인 이곳을 종합적인 관광개발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어 오가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 전망이다. 노랑해전의 전적지, 읍동마을 다랭이논, 진린도독이 주둔했던 도독마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전통 고기잡이 '독살', 정유재판 당시 총무공이 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대피시키고 조련했던 창촌 선장개, 봉화산 전망대 등을 단장하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여수시 화정면사무소의 소재지인 백야도는 백야대교로 화양면과 이어져있다. 제도와 개도, 상·하화도, 예서 낭도, 사도에 이르기까지 15개의 유인도와 56개의 무인도 등 71개의 섬을 거느린 화정면은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정정해역인 가막만과 여자만을 끼고 있다. 생태탐방로와 백야도등대공원이 유명하다. 일제강점기인 백야도등대는 거문도등대(1905.04.12), 소리도등대(1910.10.04)에 이어 1928년 12월 10일 첫 불빛을 밝혔다. 이곳을 찾으면 전국 각지의 유명한 등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섬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열다

20~22일 목포대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2015년 제6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섬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2일 까지 목포대에서 열린다.

도서해양 관련 전문 연구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 섬 전문 연구기관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지난 2009년 신안 증도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1년 삼

척(용릉도, 독도), 2012년 여수(금오도), 2013년 여수(경도, 개도), 2014년 경주(동해안)에서 제2~5회 대회를 개최, 대표적인 도서해양 종합학술대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 제6회 대회는 첫째 날 '섬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전체회의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둘째 날에는 참가 신청자 전원이 발표하는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을 벌인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참가자 전원이 흑산도를 답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불을 밝힌 백야도등대. 주변이 등대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통·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